

[반도체]

삼성전자 1Q25 잠정실적 Comment

이수림 반도체 02-709-2661 surim.lee@ds-sec.co.kr

2025.04.08

김진형 연구원 02-709-2886 jh.kim@ds-sec.co.kr

1Q25 영업이익 6.6조원으로 컨센서스 상회, 갤럭시S25와 DRAM 효과

삼성전자 1Q25 실적은 매출액 79조원(+9.9% YoY, +4.3% QoQ), 영업이익 6.6조원(-0.2% YoY, +1.6% QoQ, OPM %)로 당사 추정치 4.9조원과 시장 컨센서스 5조원을 크게 상회하였다. 사업부별 영업이익은 DS 1.1조원, DX 4.7조원, SDC 0.4조원, Harman 0.4조원으로 추정한다. 금번 실적 상회의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을 것으로 추정한다. 1) DRAM 출하량이 예상보다 견조하게 나타났고, 2) 갤럭시S25의 판매 호조 및 원가 절감으로 MX 사업부 영업이익이 추정치를 크게 상회하였다. 1Q25 스마트폰 출하량은 약 6천만대 수준으로 전분기 대비 14% 성장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환율 효과 역시 매출액 증가에 기여하였다.

[사업부별 실적 추정]

1분기 DS 부문 영업이익은 당사 기존 추정치 0.3조원 대비 0.8조원 상회한 1.1조원을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하는 데 DRAM 3.7조원, NAND -0.4조원, LSI/Foundry -2.2조원으로 세부 추정한다. 1Q25 DRAM B/G는 -5%, ASP는 -13% 하락했을 것으로 추정하며 NAND B/G는 -11%, ASP는 -9% 하락으로 추정한다. 기존 DRAM B/G는 한 자릿수 후반대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구환신 및 관세 영향으로 인한 Pull-in 수요와 더불어 2분기 회복을 기대했던 PC/모바일 향 수요가 3월 들어 빠르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메모리 가격은 2분기에도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한다. MX 부문은 기존 3.7조원의 영업이익을 추정했는데 4.3조원을 기록하였다.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76,000원 유지

2분기 영업이익은 6.8조원으로 추정하며 1분기 잠정치를 반영해 연간 영업이익은 35조원으로 상향한다. 관세로 인한 직간접적 영향은 다음과 같이 나타날 수 있다. 스마트폰은 대부분 베트남, 인도에서 생산하고 있어 관세로 인한 직접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 다만 관세 확정 시 생산지를 최대한 변경하여 리스크를 최소화 할 것이다. 가전은 대부분 미국 또는 멕시코에서 생산하고 있다. 반도체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나 관세로 인해 세트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간접적인 악영향은 발생할 수 있다.

표1 삼성전자 1Q25 잠정 실적 요약

	1Q25P (추정)	당사 추정치	차이	컨센서스	차이	4Q24	%QoQ	1Q24	%YoY
매출액 (십억원)	79,011	77,472	2.0	77,118	2.5	75,788	4.3	71,916	9.9
영업이익 (십억원)	6,594	4,943	33.4	4,961	32.9	6,493	1.6	6,606	-0.2
DRAM	3,705	3,169	16.9	-	-	5,054	-26.7	1,897	95.3
NAND	-415	-470	적지	-	-	233	적전	809	적전
LSI/Foundry	-2,234	-2,392	적지	-	-	-2,421	적지	-792	적지
VD/CE	420	416	1.0	-	-	162	159.3	561	-25.1
MX/네트워크	4,327	3,647	18.6	-	-	2,108	105.3	3,514	23.1
SDC	416	319	30.4	-	-	869	-52.1	341	22.0
Harman	375	253	48.2	-	-	391	-4.1	241	55.6

자료: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추정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